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0兆 돌파 “방역·경제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투입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2조1000억  
“시민의 삶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내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12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의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 의지”라며 “서울시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격변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담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는 ▲S-방역(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금년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서울시 신용 등급을 AA로 평가했고 예

산 대비 채무 비율도 행안부가 정한 25% 이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방역 체계 강화에 31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물품 비축과 감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백신 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예방 시스템에 958억원을 사용한다.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 방역에 447억원을 편성해 내년도 대중교통 감염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

선다는 목표다.

시는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여개를 만들고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10억원이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을 지원하는데 56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는 3376억원을 배정했다.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도시 기반 시설에도 투자한다. 내년 개통하는 서울 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 고양 성사혁신지구, 내달 중순 착공

국토부 일괄 심의서 조건부 의결  
2024년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



고양 성사혁신지구 조감도 /고양시

고양시가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등에 대해 일괄 심의 받아 조건부 의결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고양 성사혁신지구는 작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받은 전국 4곳(고양-성사, 서울-용산, 천안-역세권, 구미-공단동) 중 가장 먼저 설계와 주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월 중순 국가시범지구 1호로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될 예정이다.

민선7기 고양시가 도시재생 핵심사업 대상으로 삼았던 덕양구 성사동 원당공영주차장 일원 12,355㎡ 부지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토부로부터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존 원당·능곡·삼송 3개 뉴딜사업의 국비 보조금액을 능가하는 250억

원을 지원받는다.

고양 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30년이 경과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주거·산업(기업)·공공행정·생활SOC·상업(판매)시설·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시설(약 99,778㎡)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등을 적용해 건축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김포시, G6002·G6004 버스노선 운행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확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노선으로 신규노선인 ‘G6002’와 ‘G6004’번이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노선인 G6002번은 원도심인 풍무동 유현마을(사거리)에서 출발해 당곡고개, 양도사거리, 풍무역을 지나 시도5호선, 올림픽대로를 통해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영등포역까지 6대가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며, G6004번은 양촌산업단지의 금빛마을,

센트럴자이, 모담마을에서 서울의 DM C, 흥대, 합정까지 8대가 운행한다.

한편 기존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노선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중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시와 경기도, 도의원, 시의원, 운수업체가 모두 함께 합심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 서울시, 한강공원-암사유적지 녹지길 연결

2022년 말까지 ‘암사초록길’ 조성  
올림픽대로 왕복 4차로 지하화



암사초록길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과 강동구 암사동 유적을 녹지길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광나루 한강공원과 서울 암사동 유적 사이의 올림픽대로 왕복 4차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엔 길이 100m, 폭 50m, 총면적 4800㎡ 규모의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목표다. 사업비로 약 300억원(시 260억원, 구 40억원)이 투입된다.

암사초록길이 생기면 광나루한강공원으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암사역사공원, 선사이야기길, 서울 암사동 유적,

암사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포함 이 일대의 역사·문화·생태공간을 아우르는 녹지축이 완성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수렵 채집이 활발했던 신석기 시대의 역사성을 회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잇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장물을 옮겨 설치하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올림픽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 세분화

파주시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생활환경에 맞춰 2일부터 대형폐기물 품목과 종량제봉투 규격을 세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장롱, 침대와 같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슈퍼마켓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버려야 하는데, 품목 분류가 한정돼 있어 시민들이 품목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파주시는 조

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분류를 기존 69개에서 161개로 보다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제작 규격도 일부 변경된다. 깨진 유리, 도자기 등을 담은 불연성폐기물 봉투는 기존 50리터 단일 규격에서 20리터 규격이 추가됐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음식물용 봉투 1리터가 신설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 서울시, 마곡-한강 직결 자전거길 개통

서울시는 강서구마곡지구에서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총 길이 790m, 폭 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마곡과 한강을 연결하는 최초의 자전거 전용도로다. 시는 여의도·영등포 일대 업무·상업 밀집지역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마곡에

서 한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근 방화동, 가양동을 거쳐 가거나 보행도로를 이용해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곡-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식물원 습지공원 인근의 양천로47길을 따라 편측 양방향으로 설치됐다. 차도·보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길 안내와 야



양천로 47길 자전거 전용도로. /서울시

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태양열 LED 표지병도 갖췄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9 | 해질 / 17:32

11월 3일 (화)  
음력 : 9월 18일

수도권 날씨  
**2 ~ 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2/8, 동두천 0/9, 파주 -1/8, 서울 2/9, 양평 1/10, 수원 3/9, 평택 0/10, 인천 4/9, 백령도 6/9, 가평 -2/9, 용인 3/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